

기독교학문과 교회 봉사

I. 서론

기독교학문이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기 위하여 먼저 교회에 대해 생각한 다음, 기독교학문에 대해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기독교학문이 교회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II. 교회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교사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보편 교회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즉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다 -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무리이고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것을 기다린다'(벨직 신앙고백 27항). 이 동일한 사상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렇게 표현한다. '보편적 즉 우주적 교회는 -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 선택받은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지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아래에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앞으로도 모여들어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신부, 몸, 총만이다'(25장 1절). 그렇다면 이 우주적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으며 그 구성원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통일성을 가진다.

각각의 신자가 몸 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는 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2절). '이 교회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의 마

지막까지 존재할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신민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이것이 드러난다'(벨직 신앙고백 27항). 그러므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의 지역 교회에서 드러나는 우주적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다. 이런 까닭에 이 신앙고백서들은 교회에 대한 논의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고려해야 할 사실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드러나는 정도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이 보편의 교회는 때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때로 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보편 교회의 지체들(members)인 현실의 교회들은, 거기서 복음이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따라, 성경의 명령들이 실행되는 정도에 따라, 공예배의 순결성의 정도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4절). 여기서 순결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주적 교회의 속성 곧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이다. 이런 성격이 보이는 교회에서 더 많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더 순결한 것이고, 덜 드러나면 덜 순결한 것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가 비록 완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며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상태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은, 참된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요구한다. 벨직 신앙고백은 참 교회의 표지라는 항목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종파들이 자기들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 때문이다’(29항).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종교 집단들이 많이 있으므로, 무엇이 진짜 교회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신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 다음과 같은 표지들(marks)이 있다면 그것은 참 교회로 인식될 수 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순결하게 선포하는 일에 열중한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순결하게 행한다; 그 교회는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교회 권징을 실천한다. 요컨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를 다스려 나가면서 말씀에 거슬리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견지해 나간다. 이런 표지들에 의해서 사람은 참 교회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 아무도 이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주적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서 완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한 악한 공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그리스도 재림때까지는 필연적인 것이므로 교회는 또 다른 성격, 곧 전투하는 교회의 성격을 가진다. 이 전투의 양상과 성격은 성경에 풍부하게 가르쳐졌으나 그 대표적인 가르침은 에베소서 6:10-18에 있다.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여 얻으려는 결과가 무엇인가? 지상의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성격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가 거룩성에서 더욱 떠나고, 보편성에서 더욱 떠나고, 일체성에서 더욱 떠나서, 마침내 교회가 이름만 교회이고 실제로는 교회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종교집단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다.

III. 기독교학문이란?

우리는 기독교학문을 중생한 신자가 하는 전문적인

학문 활동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화란의 기독교 철학자 도여베르트의 틀을 차용하자면, 기독교 학자라고 해서 별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학자가 아닌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한다. 이 영역에서는 학자라고 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하지만 학자는 그런 일상생활의 어떤 한 가지 측면에 좀 더 집중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다. 모든 학문은 삶의 특정 측면에 집중한다. 학자는 자신이 정한 측면에 집중한다. 그러므로 그런 이론적 활동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보다 그 분야에 대한 훨씬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학문 활동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지와 안녕을 위해 제공하시는 일반 은혜 안에서 수행되므로, 신자도 거기에 참여하여 학문 활동과 지식의 교류를 통하여 도움을 주고받으며, 인간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활동 속에서 기독교 학자가 어떤 면에서 불신자가 할 수 없는 기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다. 기독교 학자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생겼고(요 3:1-7), 우주와 세상을 계시의 빛에 비추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신자인 학자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골 3:10).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의 관리자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창 1:26), 사람이 타락으로 인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돌리기 위해 독생자가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진행된다(엡 1:20-23)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에 이른다는 사실은 불신자 학자에게는 뜻 모를 소리이지만(요 3:8), 기독교 학자에게는 그의 삶과 학문 활동의 원동력이요, 근본 원리가 된다. 이런 새로운 지식에 근거하여 기독교 학자는 자신의

학문 활동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 불신자는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학자는 불신 학자가 할 수 없는 기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학자의 학문 활동에서 드러나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학문의 기여가 교회를 통한 만물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기독교학문의 교회 봉사는 중요한 주제이다.

IV. 기독교학문의 교회 봉사

기독교학문은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습득하는데 사용되는 학문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교회에 봉사할 수 있다. 그중 한 가지 분야가 교회 조직과 운영이다. 우주적 교회가 지상에 드러날 때에는 조직체의 형식을 띠게 된다. 교회 조직의 문제는 운영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회 조직의 독특성이 우주적 교회의 유기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교회 운영의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교회는 유기체로 움직인다. 마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교회의 각 지체도 머리가신 그리스도의 인도와 지시 하에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엡 4:16; 고전 12:1-7). 이런 유기체성이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 조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구현되어야 하는가?

사람이 교회의 머리 노릇을 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있어 왔다.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여 사람을 교회의 머리처럼 만든 것이 로마 카톨릭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기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본 조건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사실이 신학적 구호가 아니라 교회의 실제 행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런 일이 왜 잘 되지 않는가? 목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느니, 회중이 무책임하다는 상식적인 진단은 많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한국의

교회와 문화, 사회의 독특성과의 관계에서 학문적으로 살펴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며 그것을 실행해 나가려는 좀 더 전문적인 노력은 기독교 학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주적 교회는 모든 죄와 불법, 부도덕이 전혀 없는 교회이다. 그렇다면 지상의 교회 역시 모든 죄와 불법, 부도덕과 싸우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교회가 도덕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면 이는 그 교회의 본질적 속성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선언만으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죄로 얼룩지고 악과 불결한 것이 가득한 현 세상에서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될 때가 있다. 어떤 문제들은 옳고 그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는 너무나 많은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다. 생명 공학으로 인한 유전자 조작의 문제, 의학의 발달로 인한 연명치료와 안락사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우선인가 환경 파괴를 막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문제들과 같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분야들이 많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교역자가 어떤 해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목회자와 기독교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거룩한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

우주적 교회의 속성 중 하나가 보편성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동일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지역 교회의 사람들이라면 인종이나 국경이나 사회적 계급이나 성별에 의한 모든 경계가 그들 사이에서 허물어져야 한다. 우주적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그런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보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지상적 드러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참된 의미의 교회인가 하

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특별히 다민족 국가가 되어 있는 한국 상황에서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는 우주적 교회의 보편성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려 있는 한국이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에게도 큰일이다. 이런 문제에서 교회가 보편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제반 벽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적 연구가 요구될 것이다. 이것 역시 기독교 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연합한 사람들로 구성된 우주적 교회는 완전한 통일성을 이룬다. 다른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이 통일성도 사람들의 종교적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의 속성이 지상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일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며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통일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지상의 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참 신자들은 교회의 통일성에 역행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모든 일에 찬성하며 가담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적으로는 그들의 노력이 교회의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

재림 전 현 역사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공간적, 언어적, 문화적 제약에 의해서 교회가 함께 있지 못하거나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혹은 서로 물리적인 교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의 경우 동시대를 사는 한 사람의 신자가 유의미한 접촉을 가질 수 있는 신자의 숫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럴지라도 모든 시대의 교회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 학자

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협력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교회의 통일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이며, 영적으로 그러하다면 학문 활동에 있어서도 한 몸처럼 움직이는 현실이 있어야 한다. 인간 이해에 있어서, 그 이해를 근거한 정책 결정과 우선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만족시킴으로 살림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기독교 학자는 근본적인 의견의 일치에 이르러야 한다.

V. 결론

기독교 학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봉사를 그런 다양한 기여들 중의 하나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자의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사실이 그가 지역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로 드러나므로, 교회에 대한 봉사는 그의 모든 활동의 뿌리이며 절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학자를 불러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것은, 이런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에서 그의 학문적 소양과 능력을 활용하라는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가 그 일을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것이다.



글 | 황영철

충신대학교를 졸업, 영국 쉐리(SURREY)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기운실 협동 총무를 역임하고, 지금은 성의교회의 담임목사다. 저서로는 『다시, 겸손을 말하다』, 『성령과 윤리』, 『이 비밀이 크도다』, 『겸손』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비전』 등이 있다.

※ 본 칼럼은 국민일보와 함께 합니다.
(2016. 6. 18일자 발행)